

# ‘아기 호랑이’ 김태형·이호민 “신인상 목표 실력 입증할 것”

2025 KBO 신인 드래프트 KIA 1·2라운드서 나란히 지명 24일 챔피언스필드서 입단식 “빠르게 적응해 더 성장하겠다”

KIA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신인 투수 김태형과 이호민이 신인상을 목표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두 선수는 연고 출신 지역 팀에 나란히 1라운드와 2라운드로 지명받게 된 만큼 더 강한 애정으로 팀을 위해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KIA는 지난 11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전체 5순위)로 덕수고 투수 김태형, 2라운드(전체 15순위)로 전주고 투수 이호민을 지명하는 등 11명의 새 얼굴을 선발했다.

김태형은 광주서립초와 화순초, 화순중, 덕수고를 나왔고 이호민은 나주북초와 화순중, 이평BC(정읍 이평중), 전주고를 거쳤다. 두 선수 모두 타이거즈 연고인 호남에서 성장한 유망주들이다.

이들은 KIA와 계약을 마친 뒤 지난 24



덕수고 투수 김태형(왼쪽)과 전주고 투수 이호민이 지난 2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2025년 KIA타이거즈 신인 선수 입단식을 갖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입단식을 갖고 프로 선수로서 첫 발을 뒀다. 김태형은 3억원, 이호민은 1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김태형은 “2025시즌에 실력으로 보여드리겠다”며 “압도적인 성적과 투표로 신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고, 이호민 역시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110명이 뽑혔는데 그중에서 1등이 되겠다. 제가 신인상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호남을 발판 삼아 성장한 만큼 김태형

과 이호민 모두에게 챔피언스필드는 익숙할 수밖에 없는 구장이다. 어릴 적부터 KIA의 경기를 지켜보며 프로 선수의 꿈을 키우기도 했다.

김태형은 “챔피언스필드에 자주 와봤기 때문에 익숙하다”며 “양현종 선배님은 누가 봐도 잘하는 선수다. 제2의 양현종이 돼 타이거즈 에이스 타이틀을 물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호민 역시 “(김)태형이보다 챔피언스필드에 많이 와보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웅장하고 멋지다”며 “고등학교 시절 템포가 빠르고 제구와 변화구가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윤석민 선배님을 닮고 싶다”고 언급했다.

장점에 대해서도 당차게 어필했다. 프로 무대에서 강화 과정을 거친다면 김태형은 선발 투수, 이호민은 필승조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녔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김태형은 “스태미나가 좋기 때문에 긴 이닝을 끌고 갈 수 있다.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더 연습해서 선발 로테이션에 투입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며 “안 다치고 꾸준히 야구를 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배우겠다. 1군에서 살아남으

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도 조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호민도 “누구보다 안정된 제구력을 갖추고 변화구 구사 능력도 좋다. 열심히 준비한다면 빠르게 1군 마운드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투수라고 생각한다”며 “구위와 구종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지금 상태로 잘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1군 무대에서 마운드에 오르면 첫 상대로 만날 타자에 대한 기분 좋은 상상도 꺼내 들었다. 김태형은 덕수고 선배인 롯데 자이언츠 나승엽, 이호민은 김도영을 첫 상대로 희망했다.

김태형은 “프로에서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면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된다”며 “김도영 선배님과 붙고 싶었지만 같은 팀이어서 만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배인 나승엽 선배님과 승부를 펼치고 싶다”고 희망했다.

이호민 역시 “1군 마운드에서 타자 선배님들을 상대하는 기분과 분위기를 빨리 느껴보고 싶다”며 “손 감각이 좋기 때문에 모든 변화구에 자신 있고, 같은 팀이지만 김도영 선배님을 상대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3전4기 프로행’ 정영웅 “절실하게 기회 잡을 것”

광주일고-동강대-원광대 거쳐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KT 10라운드·전체 99순위 지명

화정초-무등중-광주일고를 거쳐 동강대와 원광대를 나온 ‘광주 토박이’ 정영웅(사진)이 네 번째 도전 끝에 프로 진출의 꿈을 이뤘다. 마법사 군단의 검정빛 유니폼을 입고 1군 무대에 데뷔라는 새로운 목표를 품게 됐다.

정영웅은 지난 11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0라운드 9순위(전체 99순위)로 KT 위즈의 지명을 받았다. 드래프트 도전 네 번째 만에 이뤄낸 쾌거다.

정영웅은 “공만 잘 치면 프로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타격에만 집중하던 때가 있었다”며 “남들을 따라가지 않고 내 스타일을 찾아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마음을 고쳐먹었다. 특히 타석에서 번트 같은 팀플레이에 집중했고, 노하우가 쌓이면서 경쟁력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일고 3학년, 동강대 2학년, 원광대 4학년 때 드래프트에서 낙방한 정영웅은 야구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 유급을 신청한 뒤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드래프트에 도전하며 끝내 24세의 나이로 늦깎이 신인이 됐다.

그는 “드래프트에서 세 번이나 지명을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겪었다”면서도 “야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일절 없었다. 야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시 프로에 도전하겠다고 마음먹고 유급을 하고 군 복무를 하며 마지막 도전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절치부심한 정영웅은 올해 원광대에서 리드오프로 맹활약을 펼쳤다. 동강대 시절부터 리드오프로 자리매김하며 선구안과 출루 능력을 장점으로 선보였지만 특



히 올해 대학 야구 17경기에서 타율이 0.380(50타수 19안타), 출루율이 0.508에 육박했고 2루타 2개와 3루타 4개를 생산하는 등 장타율도 0.580에 이르렀다.

그는 “공격보다 수비와 주루 플레이에 더 강점이 있다. 타구 판단 순발력이 좋고 수비 범위가 넓다”며 “내년 봄 1군 스프링 캠프 명단에 승선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스프링 캠프를 통해 내 실력을 보여주고 1군 무대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정영웅은 171cm, 75kg의 체격으로 빠른 발과 강한 어깨까지 갖춰 공수주에서 다재다능함을 선보이며 LG트윈스와 KIA타이거즈, 한화이글스를 거쳐 키움 히어로즈에서 21년째 프로 생활을 하고 있는 외야수 이용규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공교롭게도 광주일고 시절부터 정영웅의 별명은 ‘히어로’다.

정영웅은 “광주일고에서부터 별명이 히어로였다. KT위즈에서도 히어로라는 별명을 듣고 싶다”며 “입단식을 앞두고 개인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이강철 감독님과 코치님들, 선배님들, 팬들께 다부진 모습으로 당차게 인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V11 이끈 김기태 전 감독 ‘KIA 통합 우승 기원’ 시구 2017년 KIA타이거즈 V11 우승을 이끈 김기태 전 감독이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5차전에 앞서 KIA의 통합 우승 기원 시구를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광주여대 배구부, 대학배구 U-리그 우승

광주여대 배구부가 창단 2년 만에 2024 KUSF 대학배구 U-리그 ‘왕중왕’에 등극했다.

광주여대는 지난 24일 경일대 체육관에서 열린 2024 KUSF 대학배구 U-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경일대를 세트스코어 3-0(25-17, 25-19, 27-25)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창단한 광주여대 배구부는 탄탄한 전력으로 출전한 4번의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선보였고, 올해 첫 출전한 KUSF 대학배구 U-리그에서 정상에 오르며 여자대학 배구 최강팀 입지를 굳혔다.

팀을 우승으로 이끈 공격수 손운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전공 1)는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최성우 감독이 최우수감독상, 손은진(스포츠학과 2)이 세터상, 박유리(스포츠학과 2)가 리베로상, 김연화(스포츠학과 1)가 블로킹상을 각각 수상했다.

최성우 감독은 “강한 훈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빛나는 투혼으로 승리를 일궈낸 선수들과 이선재 총장을 비롯한 학교 교직원들의 관심과 성원이 우승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며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광주여대의 명예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열리는 전국체전에 광주대표로 출전하는 광주여대는 실업팀 양산시청과 첫 경기를 치른다.

최성우 감독은 “양산시청과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첫 상대로 만나 아쉽게 패한 기억이 있다. 이번 우승으로 경기력과 자신감을 끌어 올린 만큼 올해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광주여대가 첫 경기에서 양산시청을 꺾으면 우석대-목포과학대 승자와 준결승에서 만난다.

한편 기보배·최미선·안산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을 배출하며 여자양궁 사관학교로 명성을 드높인 광주여대는 지난해 글로벌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해 스포츠학과를 신설하고 배구부와 농구부를 운영 중이다. **최동환 기자**